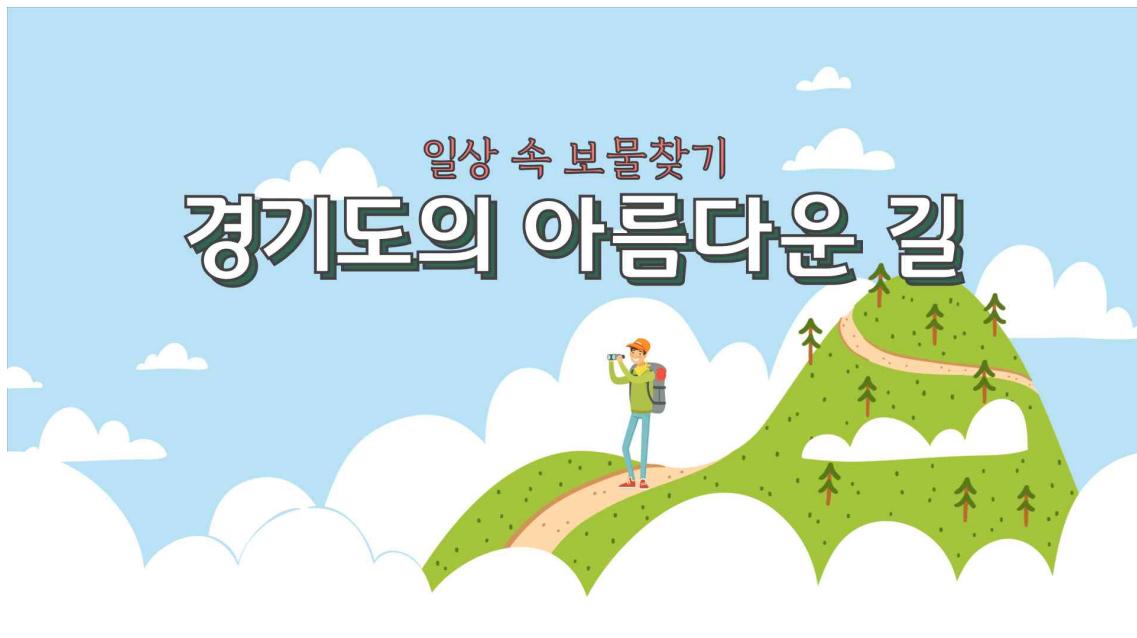


일상 속 보물찾기 경기도의 아름다운 길



■ 학습목표

바쁜 일상생활을 보내는 경기도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.

■ 강의 요약

트레킹(Trekking)이라는 단어는 원래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계 주민인 보어인의 언어 'Trek'에서 왔다고 합니다. 이 말은 '우마차를 타고 여행하다'라는 뜻으로 달구지를 타고 정처 없이 집단 이주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.

경기도의 아름다운 길을 돌아보며 그곳의 경치와 자연이 주는 쉼을 느껴보세요!

■ 과정구성

1. 뒤를 돌아보며 걷는 길 - 우음도길

- 화성시 우음도길을 돌아보며 자연이 주는 쉼을 누리고 나를 돌아본다.

2. 잘 짜여진 유럽의 공원을 걷다 - 일산호수공원 / 평화누리 4길

- 자유로의 관문인 행주산성에서 시작하여 일산호수공원과 킨텍스를 거쳐 파주 초입에 이르는 구간. 평화누리길 전체 12개 코스 중 유일하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길을 걸어본다.

3. 4계절 4색, 사색의 길 - 우이령길

- 전국 걷고 싶은 길 10대 명소 중 하나인 우이령길. 각 계절이 흠뻑 젖어드는 우이령 길을 걸어본다.

4. 밀물과 썰물이 그려낸 자연 - 갯골생태공원

- 고즈넉한 호숫가를 돌다가 보통천을 따라 거닐며 평온함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.
그린웨이 염전길을 따라 걸어본다.

5.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길 –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/ 평화누리 8길

- 손을 잡고 거니는 커플과 웃음소리 가득한 가족들의 데이트 코스.
드넓게 펼쳐진 잔디밭을 감상한다.

6. 숨 가쁜 일상, 나를 마주하는 시간 – 경기도의 둘레길

- 사진작가 김진석에게 길이란?
그에게 길이 의미하는 것과 기억에 남는 길은 어떤 곳이었는지 이야기를 듣고, 나의 길에 대해 생각해본다.